해외서 돌아온 우리 성보 '한자리에'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19년 미국서 환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미국 소장자에게서 직접 구입했다.

오는 9월 25일까지 1층 전시실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 40여 점
'백자동채통형병' 등 6점 최초공개
문화재가치 환수경로 등 상세안내

환수문화재 4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사무총장 김계식)은 7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展을 개최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5(고려 14세기 후반)' 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조선 국보)등 환수문화재 40여 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 와 올해 3월 미국에서 환수한 '열성어필' 과 '백자동채통형병' 을 처음 공개하고, 언론에만 한 차례 공개됐던 '독서당계회도(2002년 미국서 환수)' '면피갑(2018년 독일서 환수)' '문인석(2019년 독일서 환수)' 등 6건의 유물도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2019년 미국에서 환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27.5cm×900cm, 국립중앙박물관)' 은 검푸른 종이에 불교 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은가루로 필사한 사경으로 전체 7권 가운데 다섯 번째 권이다. 14세기 후반의 특징을 보이는 사경 구성 요소들이 잘 보존돼 있어 연구 및 활용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미국 개인 소장가로부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직접 구입했다.

2006년 일본에서 환수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선조실록 43.3cm×32.5cm, 중종실록 39.1cm×31.3cm)은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이다. 1914년 일본 도쿄대학으로 불법 반출되었으며,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고 그 중 47책이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2006년에 돌아왔다.

처음 공개되는 환수문화재 중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 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나전 상자로, 제작 수준이 높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국내에서 전시, 연구 등의 활용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 환수해 첫 선을 보이는 '열성어필' 은 조선시대 왕들의 글씨(어필)를 탁본하여 엮은 책으로, 1722년에 간행된 이후 3년만인 1725년에 새로운 어필을 추가하여 묶어 형태가 드문 유물이다.

백자 표면을 구리 안료로 장식한 병인 '백자동채통형병' 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스미스(Stanley Smith, 1876~1954)가 소장했던 것으로, 국외 문화재 반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한편, 출품작 중 가장 오래전에 환수한 문화재로는 2005년 독일에서 영구 대여방식으로 돌아온 겸재 정선화첩과 같은 해 일본에서 환수한 북관대첩비가 있다. 이는 환수 이듬해인 2006년 원래 자리인 북한 함경도 길주(김책시)로 반환됐고, 복제본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앞마당에 있다.

전시는 △1부 '나라 밖 문화재' △2부 '다시 돌아오기까지' △3부 '현지에서' 로 구성했고, 해외에서 다시 돌아온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환수경로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전시 공간을 연출했다.

△1부 '나라 밖 문화재' 에서는 돌아온 유물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나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했다. 일제가 유출했으나,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2006년에 환수한 국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을 볼 수 있고, 보물인 '국새 황제지보' '국새 유서지보' '국새 준명지보' 는 모두 한국전쟁 때 도난당했다가 미국과 공조로 그 존재를 찾아내면서 2014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돌아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환수한 '백자동채통형병' 은 미국인 수집가가 반출한 유물로, 국내 소장 사례가 적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전시 작품 중 어보와 국새는 관람객이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회전시키기도 하고, 글자가 새겨진 인면(印面)을 올려다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전시했다.

△2부 '다시 돌아오기까지' 는 전시 유물을 통해 문화재 환수의 여러 방법을 보여준다. 한 · 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소장기관에서 기증받아 환수한 '덕혜옹주 당의와 스란치마' , 한국과 미국의 수사공조로 불법성을 확인하고 국내로 환수한 '호조태환권 원판' 을 통해서는 기관을 통한 기증과 도난문화재의 환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소장자가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방식으로 들여온 환수문화재인 '문인석' 과 '면피갑' 도 관람할 수 있다. '문인석' 을 소장했던 독일 로텐바움세계문화예술박물관은 해당 유물이 불법 반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반환을 결정하면서 2019년 3월 환수할 수 있었는데, 매우 드문 사례이다.

조선 후기 보병들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면피갑' 도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이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 기증하면서 2018년 돌아온 유물이다. 환수 당시에 잠깐 공개되었지만, 국립고궁박물관이 보존처리한 후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고, 면피갑의 안과 밖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복제품도 함께 전시된다.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희소하거나 문화재적인 가치가 클 경우 '구입' 이라는 방식으로도 환수된 문화재도 있다.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 와 '열성어필' 이 경매로 구입한 대표적인 유물로, 이렇게 환수한 유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전시에 활용되고, 관련 분야 연구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상호작용(인터렉티브) 영상으로 문화재가 환수되는 여러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생생하게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914년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2006년 환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3부 '현지에서' 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국내로 환수되지 않더라도 머물고 있는 현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그간의 성과를 다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지원했던 해외 소재 문화재의 보존처리 과정과 해외에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아울러 그 동안의 조사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도 직접 읽어볼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조사, 구입,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직원들, 수많은 국외 문화재의 환수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현지 복원 등에 2013년부터 22억 원 이상을 후원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전문회사 라이엇게임즈, 전시기획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관람객이 나라 밖 문화재의 각각의 여정을 돕고 있는 생생한 육성을 듣고, 자신만의 느낌을 적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애정 어린 비판과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2)3701-7500

풍경소리 54집 발표

다시 희망 꿈꾸고 일상 노래한 '견성의 새 아침에' 등 8곡 수록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 창작곡집 '풍경소리' 54집을 발표했다. 여름을 맞이하여 발표하는 이번 54집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시 희망을 꿈꾸고 일상을 노래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54집에는 '견성의 새 아침에' (곽영석 작사 / 서근영 작곡)와 흥겹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복의 씨앗을 뿌려' (서근영 작사 / 서근영 작곡), '칠가식' (정창훈 작사 / 이종만 작곡), '행복은 내가 짓는 것' (반영규 작사 이종만 작곡)과 '우담바라 꽃송이 활짝 피었네' (함현스님 작사 / 이종만 작곡), '바람' (심윤서 작사 / 최미선 작곡), '산사를 걸으면' (이민영 작사/곡), '오늘 좋은날이야' (덕신스님 작사 / 이종만 작곡)가 수록됐다. 모든 곡의 반주음악도 함께 수록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의 찬불 창작곡집 '풍경소리' 는 199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에 노래집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CD, USB, 악보 등 다양하게 제작되어 일선의 어린이 · 청소년 법회와 불교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는 물론 일반 불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오후 6~9시) 시간에 '큐레이터와의 대화' 를 운영한다.

이번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에서는 서화관에서 '겸재 정선의 산수화' 와 '부채와 대나무로 여름나기' 가 진행되는데 조선시대 여름 풍경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며, 19세기 부채와 나비 그림을 보며 선조들의 여름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선사고대관에서는 구석기시대 '주먹도끼의 진실' , 신석기시대 '인류 최초의 발명품 토기' 를 만날 수 있으며, 조각공예관의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 '사리장엄구' '철불, 쇠를 부어 만든 부처' 에서는 불교조각과 공예품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이라면, 도자기의 보존처리 전후 상태를 알아보고 제작기법을 자세히 들려주는 '처리 전 상태를 통해 본 보존과학의 손길과 제작방법 연구' , 금속이 아닌 직물로 된 마패의 보존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직물마패의 보존' , 신안 해저선에서 출토된 '해저 출토 목간의 보존' 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박재완 기자**

